

증부내륙고속도로사업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171
----------	-----

발의년월일 : 1995. 3. 22.

발 의 자 : 이 학 영 의원
외 5 인

1. 제안이유

- 증부내륙고속도로는 충주시민과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증부내륙 지역의 열악한 교통망으로 인하여 국토의 허리부분이 빈약한 실정으로,
- 각종 공산품 및 농산물수송 등에 따른 교통체증의 누적이 가증되므로 인하여 풍부한 자원개발 및 활용 등 지방의 산업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경제침체와 이농현상을 부추기는 역작용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2. 주요골자

- 역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사업 추진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촉구를 건의하며,
- 정부계획에 의거 여주-구미간 총 154km 중 '94년도까지 48.9km에 대한 사업실시설계를 완료하고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95년 2월 정부의 민자유치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켜 증부권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가증되고 있어, 국비사업추진 등 민자유치사업을 촉구함.

건 의 서

국토종단의 대동맥이며, 국가산업발전에 중추적역할을 담당할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 사업이 충주시민뿐만 아니라, 충북 도민의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부의 민자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우리 충주시의회의원 일동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당초 계획된 바에 따라 틀림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것이 예산상 어려울 시는 정부의 금번 민자유치사업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망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서러움이 함께 깃들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잠시 자기 편의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때 당시 민정당 대통령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후보연설에서 여주-구미간 고속도로의 개설은 충주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임기내에 이루지 못하였으며, 그후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현재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충주에 오셔서 똑같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이 시점에서 당초의 계획대로의 추진은 물론, 민자유치사업에서 조차 제외 되었으니, 임기내 이행은 또다시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충주시민의 희망과 아픔 그리고 서러움을 정치적으로 잠시 이용하였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약이행을 강력 촉구하며, 다음에 있을 15대 선거때 또 어느 후보가 와서 충주시민을 우롱하는 재탕식 공약을 남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주지역은 옛날부터 국토의 중심부이며 한강유역에 위치하여 수륙교통의 요지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60년대 후반 경부고속도로건설로 말미암아 국토종단의 교통의 축에서 멀어지면서 부터 지역발전의 좋은 여건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농촌 경제의 침체와 이농현상을 부추기는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주에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음성, 일죽, 이천까지와 충주에서 문경, 안동, 구미까지는 주말, 공휴일, 명절, 피서철이면 상상을 초월한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열악한 교통상황때문에 4년전 지방의회탄생과 동시에 우리 충주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경기도, 충북, 경북지역 13개 시.군이 모여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숙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민자유치계획에서 마저 제외 되었다는 소식만을 접하고 보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 29명 전원은 22만 충주시민의 뜻을 모아 본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년 3 월 일

충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